

남성들도 성희롱 당하고 있다!

남성들도 성희롱 당하고 있다!
남성들도 성희롱 당하고 있다!
남성들도 성희롱 당하고 있다!



이욱
한국남성의전화 대표

남성 피해자를 인정하지 않는 공간이나 혼인 빙자 간음 등과는 달리 직장내 성희롱에서는 남성들도 제도적으로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남녀 성별에 관계없이 직장 내 지위나 업무와 관련해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준다면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직위를 이용한 성희롱

99년 고용평등법이 개정된 뒤 노동부는 지방 노동관서 등을 통해 직장내 성희롱 상담과 신고를 받고 있으며 성희롱이 인정될 경우 해당사업체에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한 지방공장에 근무하는 P씨는 지난해 말 여성 선배들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노동부는 정황을 검토한 결과 이 여성들의 행위가 직장내 성희롱이었다고 인정했다. 99년 정부가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신고를 접수 한 후 처음으로 여성에 의한 남성 성희롱이 인정됐다.

P씨는 성적인 수치심과 좌절감을 이기지 못하고, 분을 참지 못해 노동부에 2명의 성희롱 주범을 고소했다. 또 피해자인 P씨는

가해자로 인정되어 회사로부터 해고당하여 이에 회사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제기해 정선적 고통을 준 회사와 2명의 가해자에게 각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위의 사례에서와 같이 남성들도 성희롱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 남성의 전화에서 남성고민 상담 중 몇 년 전만 해도 한해에 10여건이었던 남성 성희롱 상담이 작년부터 배 이상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성희롱 상담은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점에서 보면 숨기기 때문에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성 성희롱 피해를 보면 주로 여성들이 많은 직장이나 여성 상사인 경우에 남성들이 당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그 유형 역시 여성이나 남성이나 큰 차이는 없다. 성적인 농담을 던지거나, 신체부위를 건드리는 행위, 수치심을 자극하는 행위, 상사라는 지위를 무기로 부하 직원에게 성 관계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여성에 의한 남성 성희롱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또한 남성 피해자들은 여성들보다 더 심한 수치심을 가지지만 요즘 직장 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참아야 할 지경이다.

남성피해자 통계보다 많은 것

사례를 보면 평소 직장에서 서류 결재를 받으려고 여성 상사 방에 들어가면 엉덩이가 좋다는 농담을 해오다 어느 날 퇴근 후 회식을 마치고 차를 태워 주겠다고 하여 차를 함께 타게 된 후 여성 상사는 집에 가 차 한 잔 마시고 가라하여 거절하지 못해 집으로 가게 되었다.

집에는 아이 1명만 자고 있고 남편은 주말 부부로 없었다. 여 상사는 집에 아무도 없으니 옷이 더럽다며 옷과 바지를 벗기를 권했고, 집에 가지 않아도 되며 자고 가라고까지 하였다. 끝내 거절하고 돌아왔지만 그 후 수 차례 성적인 굴욕을 당했다. 당장 그만두고 싶었지만 현재 직장 연봉이 괜찮고, 막상 다른 직장 구하기도 쉽지 않아 고민중이다.

또 다른 경우를 보면 미혼남성인데 가출한 유부녀가 수 차례 집으로 찾아온다. 주위사람에게 창피하여 문을 안 열어 줄 수도 없어 고민하고 있다. 이처럼 여성에 의한 남성 성희롱 사례도 늘고 있는 것은 여성들의 사회참

여가 늘어나고, 사회적인 분위기 역시 성적으로 개방 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여성이 성 피해자로 고소하면 고소를 당한 남성은 증인이 없는 상황에서는 가해자로서 억울한 누명을 쓸 수밖에 없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제는 남성들이 성희롱을 하느냐, 당하느냐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점차적으로 남성 성희롱 피해자가 늘어나는 추세에서, 여성의 예처럼, 남성들도 성 보호를 받게 될 것이며, 마땅히 남성 성희롱 피해자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본다.

여성이나 남성이나 성희롱, 성폭력은 없어야 할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아름다운 성문화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성에 대한 진지한 마음과 성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육체적인 피해는 이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우리 모두 성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남성 성희롱 피해를 보면 주로 여성들이 많은 직장이나 여성 상사인 경우에 남성들이 당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그 유형 역시 여성이나 남성이나 큰 차이는 없다. 성적인 농담을 던지거나, 신체부위를 건드리는 행위, 수치심을 자극하는 행위, 상사라는 지위를 무기로 부하 직원에게 성 관계를 요구하는 행위 등은 여성에 의한 남성 성희롱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